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2023년도
제4호

사랑의 메⁺아리



교황청 재단



탄자니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다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발행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ACN KOREA |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 | 전화 02-796-6440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337호 |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 | 팩스 02-796-6439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 예금주 (사)고통받는교회돕기한국지부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 성령을 받아라.”(요한 20,21-22)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과 함께 제자들을 인류 구원과 피조물 회복을 위한 사명에 동참시키시면서, 이를 위해 하늘로부터의 도움인 성령을 받게 하셨습니다. 마태오 복음서에는 이 사명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19-20)

예수님의 이 명령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신앙의 본질에 속합니다. 우리가 세례 때 받은 새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하고 전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바로 우리 삶 안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희망과 사랑 안에서 신앙의 지식과 힘을 키우게 됩니다. 사도행전과 교회 역사는 이 사실을 인상 깊게 입증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교적 명령을 소홀히 하는 신자나 공동체는 신앙의 힘을 잃고 만다는 것을 경험으로 압니다.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마르 1,27; 2,14 참조) 자신의 스승을 알고 신뢰하며, 스승에게서 배우고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1코린 11,1 참조)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마태 17,5)

제자는 예수님에게서 배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마태 11,29)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요한 6,68)



“예수님의 선교 명령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신앙의 본질에 속합니다.”

제자는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요한 2,5)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요한 14,21)

제자는 예수님의 일을 행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요한 15,14)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마태 7,21)

ACN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중심 과업으로 여기면서,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특히 박해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고 자원이 부족한 곳에서 이 명령을 땅끝까지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 중요한 과업에서 여러분이 보여주신 연대와 도움에 감사드리며 마음 깊이 축복을 보냅니다.

ACN 지도신부 안톤 레서

P. Anton Lamer OP

무너진 수녀원의 재건



2014년 8월 초, **이라크**에서는 100,000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진군해오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IS(다에시)를 피해 니네베 평원을 떠났습니다. 그중에는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의 도미니코 수녀들도 있었습니다. 바트나야에 있는 수녀원은 침략으로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이 수녀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녀들이 이곳을 떠나 피신한 이후에도, 그리고 다시 돌아와 수녀원을 재건해서 봉헌할 때도 말이지요. 후다 시토 수녀가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축복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관대함 덕분에 우리가 섬길 수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은 축복이었습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칼럼을 통해 새로운 수석대표로서 여러분에게 부임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ACN을 이끌기 위해 전력을 다해 헌신하신 토마스 하이네겔던의 위대한 발자취를 이제 제가 따를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임 수석대표는 임기의 절반 이상 동안,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두 가지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하이네겔던은 하느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묵묵한 도움의 손길로 이 힘든 시기에 우리를 잘 이끌어주었습니다. 그 점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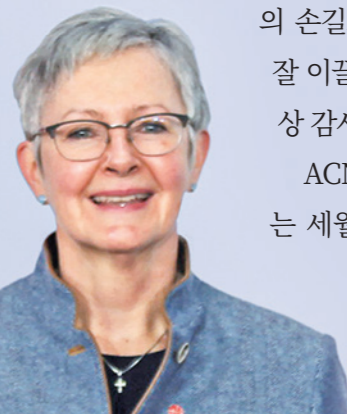
ACN에 몸담은 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여러분의 너

그러운 후원 덕분에 수많은 주교,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을 위해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신임 수석대표로서 이 기회를 빌려 기도와 기부를 통해 박해받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아낌없는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얼마나 큰 작용을 일으켰는지 제가 입증할 수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온 대주교님은 ACN 덕분에 박해받는 그곳 신자들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ACN 수석대표 레지나 린치

Regina Lynch



건설 지원



방글라데시

‘푸른 바다’에 떠 있는 희망의 섬

차를 마실 때 찻잎을 딴 사람들을 기억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들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기도로 힘을 얻는 농장 노동자들

방글라데시 북동쪽의 실렛교구는 드넓은 차 생산 지역에 있습니다. 푸른 빛을 띤 차밭의 바다가 지평선까지 뻗어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그 차밭의 바다에 파묻혀 쉬지 않고 찻잎을 따니다.

작업이 고되고, 급여도 충분한 생활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이 사람들에게는 가톨릭교회가 유일한 버팀목이라는 사실은 별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실렛의 주민 대부분은 토착 소수민족의 일원입니다. 가톨릭교회는 구분 없이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전통적인 부족 신앙을 지녔으며, 힌두교 신자들도 다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나라에서 이들 그리스도인은 그 사회의 주변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카무드푸르에 있는 성 미카엘 선교회는 이 푸른 바다에 떠 있는 희망의 섬입니다. 에콰도르에서 온 사제 두 명이 현재 이곳에서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마태 11,28 참조) 모든 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선교회는 거의 2,500명에 이르는 신자들을 섬기지만, 멀리 떨어진 마을의 가톨릭 신자들도 이 살아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회는 곧 본당으로 승격될 예정입니다. 리쵸 신부는 복음화를 위한 ‘강한 동기’가 생겨나고, 장기적으로는 토착민들에게서도 성소가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여전히 교회와 사제관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108,000,000원으로 새 본당의 초석을 놓고자 합니다. 함께 본당을 세워 주시겠습니까? 🙏



시에라리온

악몽이 된 사제관

시에라리온 프리타운에 사는 임마누엘 프랜시스 알리 신부는 천사의 인내를 지녔다고 할 만큼 참을성이 대단합니다. 현재 지내는 낡은 사제관에 계속 물난리가 나지만, 알리 신부는 결코 불평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알리 신부가 일하고 기도하면서 지내는 낡은 사제관

사제관이 악몽이 되었습니다. 지붕이 새고, 비가 오면 마당에는 호수가 생깁니다. 배관과 전기 배선 상태는 절망적이며, 썩은 나무 계단은 당장이라도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주변이 시끄럽기까지 합니다. “이곳에서는 영적 생활에 필요한 침묵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알리 신부의 말입니다. 게다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여서 높은 범죄율을 고려하면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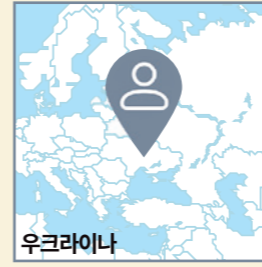


쓰러져가는 ‘사제관’ 앞에 선 알리 신부

사제관은 본래 다세대주택의 하나로 내전 희생자들의 숙소로 사용된 곳이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사제를 도우려고 했지만, 사제에게는 우선 교회부터 짓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제는 자금도 바닥이 났습니다. 그동안에도 소금기를 머금은 바다 공기와 폭우 때문에 사제관은 계속 쇠락하고 있습니다.

이 악몽을 끝낼 수 있도록 우리는 새 사제관 완공을 위해 65,700,000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사목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강해지는 영혼

전쟁이 의미하는 것은 죽음과 부상, 폐허가 된 도시, 사회적 반 시설의 파괴, 목을 곳과 도움이 필요한 난민의 무리입니다. 또한, 전쟁은 눈에 잘 띄지 않으나 오랫동안 영향을 주는 깊은 심리적 상처도 가져옵니다.

불안, 트라우마, 정신적 긴장, 분노, 증오, 어쩌면 다시는 못 만날지도 모르는 가족의 이별 등.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영적 치유는 적어도 도시 재건이나 물질적 빈곤의 해결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크라이나 교회는 곤궁한 사람들과 난민들을 위한 자선적 원조 외에도, 특별히 영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입니다.

키이우-지토미르교구의 비탈리 크리비츠키 주교(살레시오회)는 자신의 교구에 속한 젊은이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많은 젊은이가 자원봉사자로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그중 많은 젊은이가 전쟁으로 가까운 가족을 잃었어요.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의 일부를 빼앗긴 것이지요.”

그래서 주교는 교구 청소년의 날과 같은 행사를 열어 어린이와 청소년이 영성, 심리 지원을 받고, 함께 행복하고 아름다운 체험을 가질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영적 재건’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키이우에 22,000,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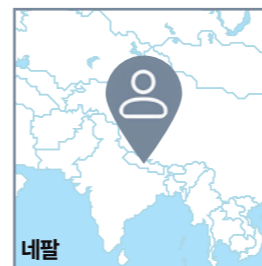
사람들이 내적으로 평화롭고, 화해해야만 그 사회가 큰 희망으로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전쟁 중에도 펼치는 영적 날개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도움을 청하는 키이우의 어린이와 청소년들



네팔

믿음의 씨앗이 자라 꽃피울 수 있도록

네팔의 가톨릭교회는 신자가 겨우 10,000명에 불과할 정도로 규모가 작습니다. 그럴수록 신앙의 깊이에 더 열중합니다.

니르말 쿠마코틸 신부가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비록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서서히 꽃을 피울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강화하고 신자들이 그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신앙의 관점으로 삶의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록 동행과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904년 인도 케랄라에서 설립된 남자 수도회인 빈첸시오회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각 200명씩을 위한 사흘간의 신앙 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 교리 교육 자료, 묵주, 성화와 기타 성물을 조달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를 위해 34,000,000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부로 히말라야에서 믿음을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



청소년들과 함께한 폴 시믹 주교 - 네팔 교회의 미래



빛자루 수사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수사는 어려움에 빠진 수도원을 돕기 위해
노예로 팔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 마르티노 데 포레스는 자신에게 뭔가 청하는 사람들, 특히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겸손과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도미니코 수도회의 평수사로서 가장 하찮은 일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종 스페인어로 'Fray Escoba'(프레이 에스코바-빛자루 수사님)이라는 애칭으로 불렸습니다.

1579년, 페루 리마에서 스페인 기사와 해방된 아프리카 노예 여성의 사생아로 태어난 마르티노 수사는 자신이 유명해지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덕에 대한 명성이 생전에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도움과 조언을 구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심지어 동물과도 대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의실에 보관하던 제대보 속에 숨어 지내던 쥐들을 발견한 수사는 쥐들에게 정원으로 거처를 옮기면 먹이를 주겠다고 부드럽게 요청했습니다. 쥐들은 수사사의 말에 따랐습니다. 이런 이유로 마르티노 수사는 종종 빛자루뿐만 아니라 동물과 함께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마르티노 수사는 아프리카계 미국 흑인으로서 최초로 성인으로서 시성된 인물입니다.

콜롬비아 남서부에 있는 성 보나벤투라 본당은 인기 있는 마르티노 성인에게 봉헌된 교회로, 주로 아프리카계 미국 흑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은 성인의 중재 기도에 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삶은 고되고 힘들며, 시골에서 강제로 이주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극심한 빈곤 속에 살고 있으며, 마약상과 범죄 조직은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ACN의 루이스 빌도소가 이 본당을 방문했습니다. “이 지역을 장악한 콜롬비아 무장혁명군-게릴라의 벽보를 보았습니다. 전날 밤에는 우리 숙소 앞에서 총격전이 있었지요. 이 지역이 콜롬비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로 보입니다.”

그러나 로렌스 신부와 본당 신부는 복음과 성사 안에서 고통을 이겨나갈 힘을 얻는 신자들 모습에 기쁘기만 합니다. 세 차례 거행되는 주일 미사의 참석률이 높고, 평일 미사에도 100명이 넘는 신자들이 참석합니다. 신자들은 자신의 영적 건강과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자신에게 잘못된 사람들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작은 성당에 앉을 자리가 충분하지 않아서, 대부분이 비가 올 때나 햇살이 뜨거울 때도 밖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당 신부는 깊은 신뢰 속에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신자들은 성 마르티노 데 포레스에게 전구를 청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자신들의’ 성인이 언제나 도움을 준다고 확신합니다. 이들의 믿음이 우리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렌스 신부의 표현대로 ‘평화의 공간’인 본당을 확장할 수 있도록 102,000,000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소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



모든 이를 환영하는 본당 신부와 신자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마태 5,9) - 폭력이 난무하는 곳을 그리스도와 함께 견습니다



아프리카 교회



하느님께는 어떠한 아름다움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주교가 간단명료하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돼지우리를 만들고자 할 때는 도움을 줄 구호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찬미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쓸모있는’ 뭔가를 만드는 게 낫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서구 세계에서는 거룩함과 신비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신자들에게는 거룩한 공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직들과는 달리, ACN은 성당과 경당 건축을 기꺼이 지원합니다. 공동체가 나무 아래에서 미사를 드리거나, 큰 희생을 치르면서 하느님을 위해 임시 집을 짓는 모습은 감동적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진흙, 짚, 나뭇가지들로만 지은 최소한의 집이지요. 이렇게 작고 불안정한 집은 얼마 안 가서 흰개미, 쥐, 또는 바람과 비로 인해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수단의 톤-아두엘에서는 초가지붕에 나뭇가지로 지은 작은 성당에서 신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신자들은 미사에 참석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일부 신자들이 지붕에서 새는 빗물을 퍼내다가, 초가지붕에 걸려 있는 뱀을 발견했기 때문이지요. 뱀을 내쫓으려고 하던 중에 뱀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몸을 숨겼고, 사람들은 뱀이 언제 다시 나타나 누군가를 물을까 겁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이들

베냉: 무너져가는 작은 성당 앞에 선 주교
에티오피아: 직접 지은 이 작은 성당은 곳곳이 무너져 있습니다

도 마침내 합당한 교회를 봉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자본으로 아주 작은 마을에도 모스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을 위한 집이 진흙 오두막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조롱을 받고 열등감도 느낍니다. 종파들에도 ‘사원’을 위한 돈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톨릭 공동체를 위해 합당한 성당은 곳곳에서 가톨릭의 정체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선교사 아우렐리오 가제라 신부가 말합니다. “누구나 아름다운 공간에서 기도하고 미사 참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움은 하느님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반사된 것입니다. 하느님에게는 어떠한 아름다움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호화 건축물을 지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프리카 신자들이 성찬례를 거행하고, 주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찬미하기 위해 주님 앞에서 노래하고 기도할 수 있는 소박하고 적절한 성스러운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곳에서 성당과 경당 등의 교회 건축을 계속 지원하고자 합니다. 🙏

남수단: 마침내 톤-아두엘 본당에 제대로 된 교회가 생겼습니다!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한국지부 소식



교황청 재단
가톨릭 사목 원조기구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Aid to the Church in Need

문의

02-796-6440,

010-7475-6440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예금주

(사)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1 제37차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참가

ACN 한국지부는 8월 1일부터 6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마리아는 일어나 서둘러 길을 떠났다' (루카 1,39 참조)를 주제로 열린 제37차 세계청년대회(이하 WYD)에 청년 봉사자 5명과 함께 참가했습니다. ACN 포르투갈 지부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며, 전 세계의 청년 순례자들에게 박해받는 교회의 현실을 알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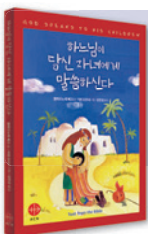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WYD 파견 미사에서 "여러분은 세상을 비추시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 시대의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시며, "경청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며, 이는 곧 가난한 이와 가장 약한 이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CN 한국지부는 교황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기도와 행동으로 박해받는 교회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2 ACN 어린이 성경 '하느님이 당신 자녀에게 말씀하신다, 한글본 재출간

ACN은 1979년부터 어린이 성경을 출판하여, 현재까지 191개 언어로 번역하고, 5,100만부 이상을 전 세계 어린이에게 배포하였습니다. ACN의 어린이 성경은 박해로 고통받는 가난한 나라에서 어린이들이 그들의 언어로 받는 첫 번째 책이면서, 일부 아이들은 평생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그림책입니다. 페루, 아프리카, 아시아 등 선교 국가에 그들의 언어로 「어린이 성경」을 지원합니다.

1만 원 이상 정기 후원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어린이 성경 1권(한글본)과 말씀 나눔 저금통을 보내드립니다.



문의 : ACN 한국지부
010-7475-6440,
02-796-6440



3 100만 어린이의 목주기도 캠페인

전 세계 어린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ACN "100만 어린이의 목주기도 캠페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ACN은 매년 10월 18일 성 루카 축일에 전 세계 평화와 일치를 위한 "100만 어린이의 목주기도" 캠페인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성 요셉이 꿈속에서 천사의 경고를 받고 이집트를 떠나 아기 예수를 보호하는 이야기'를 어린이들에게 소개합니다.



QR을 통해 ACN 100만 어린이의 목주기도 기도문을 신청해주세요!



4 2022 연간 보고서 발표

2023년 6월 15일, ACN은 지난 한 해 동안 기부자들의 정성 어린 후원과 다양한 원조 활동에 대한 <2022년 연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36만 4,695명의 후원자가 약 1억 4,600만 유로를 후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128개국, 5,702건의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ACN 수석대표는 후원자분들의 믿음과 너그러움이 있었기에 ACN이 설립 이후 처음으로 프로젝트 지원에 1억 유로가 넘는 원조를 실현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